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서언(1): 불교의 五重 關門에 대하여

불교는 어렵다. 왜 그렇게 어려운가. 다섯 가지가 어렵다.

1. 시각

근본적인 이유는 그 발상과 시각 때문이다. 불교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본다.

우리네 속인들은 "삶이란 인간의 육망을 존중하고 그것을 최대한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2. 대양성

산은 산이 아니라 됐던가,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된 사람들이 불교를 찾는다.

상적 삶이 시시해졌을 수도 있고, 현실의 고통과 부조리에 깊이 좌절했을 수도 있다.

불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해온 생명체라는 것이 그것이다.

처음 인도 북동부 갠지스 강가 반경 200킬로미터 정도에서 출발한 불교는 기원을 전후해서 대승불교로 발전했고, 반야(般若) 유식(唯識) 화엄(華嚴) 천태(天台) 정토(淨土) 선(禪) 등등의 갈래를 낳았다.

3. 언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경전에 눈을 돌릴 때 벌써 어려움에 봉착한다. 우선 양에 질린다.

거기다 이 번역은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의 맥락을 충분히, 그리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한다.

위해서는 최소한 팔리어, 산스크리트, 불교한문, 티베트어를 익혀야 하고, 거기에 근대 일본의 방대하고 치밀한 후고적 성과와 구미의 불교연구까지 습득해야 한다.

4. 경험

혹, 몇 생을 거치며 이들 언어를 습득해 나가면 불교를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종교 글로벌시대’ 리더가 필요하다

하나 사먹을 수 없다. 지식은 경험으로 확인되어야 생명력을 얻는다. 보지도 않고 믿는 것은 앵무새거나 마군이다.

해능이 <육조단경>과 <금강경 구결>에서 즐기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입으로만 경전을 외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실천하라'는 것이다.

자신이 곧 말씀이 된다. 이와 더불어 불교의 지식은 단순하고 간명하게 정돈되어 간다.

그렇게 기쁜 나머지 이렇게 말하게 된다. "소문과는 달리, 불교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5. 표현

그러나, 아직도 어려움은 남아 있다. 불교는 구경(究竟)이 아니라 방편(方便)이다.

뛰어난 선지식들은 바로 그렇게 자신만의 언어를 독창적이고 개성적으로 발명해 내었다.

요컨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아직 불교가 아니다.

이 절절 난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다. 돌아갈 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다.

우리는 늘 몰아야 한다. 경전의 말씀이 나의 이해와 체험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관되고 있는지를.

지금 하바드의 선사와 베트남의 포교사, 그리고 티베트 망명객의 목소리가 한국불교의 하늘을 덮고 있다.

한국불교가 그 살아있는 정신과 제도를 이궁핍한 시대에 인류의 영적 이상으로 되살려 세계에 수출을 하는 것이 도리어 마땅하지 않은가.

지금의 전 세계의 불교 자원이 수입되어 있고, 나아가 다른 정신적 종교적 수면까지 국경이나 문화적 제약 없이 실험되는 '자유경쟁' 시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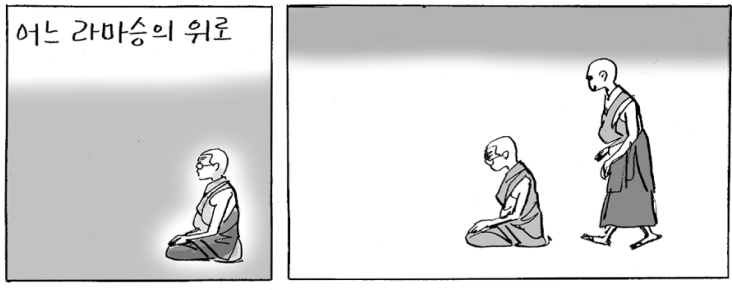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사파라...

24 립상람파의 'SLOW'



조태호



립상람파: 시릴 호스킨이라는 영국인 이었으나 자신이 라마승의 환생임을 깨닫고 티베트 초파리 승원에서 새 삶을 얻은 수행자다.

네티즌 교리문답

“무심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전심법요에 “사방의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무심도인(無心道人)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하다” 했는데, 무심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ID '초발심')

답1: 무심도인이라 일체의 분별심과 망상이 떨어져 나간 사람을 말한다. 진여 그대로인 몸이 안으로는 묵서 같아서 움직이지 않으며, 밖으로는 허공 같아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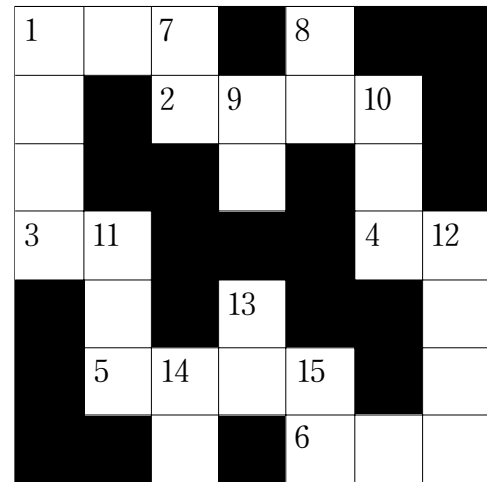
답2: '무심'이란 마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면서도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핸들과 페달에 온 힘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잘 안되지만 나중에 능숙해지면 핸들이나 페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 탈 수 있는 것과 같다.

답3: 〈선가귀감〉에 무심도인을 설명한 글이 보인다. '법부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따르고, 수도인은 마음만 붙잡고 한다. 그러나 마음과 바깥 현실 두 가지를 다 잊는다면 이것이 바로 참다운 법이다.' (ID '학인')

답4: 서암 스님은 무심도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무심도인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경계에도 자기가 정신없이 흘러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분별을 가지고 별력 화를 내도 자기가 중심을 가지고 그런 게 있고, 참으로 그 경계에 사로잡혀 넘어가는 것도 있고 경계가 달라, 무심을 단계를 정하고 옳다. 그러다 정하면 벌써 어긋나 버려. 결국 자기 중심 없이 생사의 단계에 이 끌리지 않는 사람이 무심도인이다.' (ID '서사모')

답5: 지혜로운 자는 그의 삶을 허공에 세우는 법이다. 대자연과 하나 된 무심도인의 마음은 일체의 인위적인 조작과 분별심 없이 평상심으로 사는 자유인을 말한다. (ID '자유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정답은 26면에

상식퍼즐

1. 사자와 백 개를 만들어 놓고 고승을 모셔 설법을 듣는 큰 법회를 일컫던 말. ○○○○ 2. 나라를 격정하고 염려하는 참된 마음. 3. 주소나 이름을 붙여 대문에 붙이는 작은 패. 4.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적은 문서. 5. 경솔하여 생각 없이 행동함. 6.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 모양의 배.

세로

1. 1967년 해인총림 방장에 취임한 성철 스님이 그해 동안거를 맞아 설한 백일간의 법문을 칭하는 말. 7. 왼쪽과 오른쪽. 8. 괴로운 심정이나 사정. 9.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췌(서정주 시의 일부). 10. 부정이 없고(正) 치우침이 없는(等) 깨달음 또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이. 11. 최초의 불교 결집에서 만들어진 결집경전(結集經典)으로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였던 나뭇잎(다라수)에 적은 것. 12. 제1차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영국·프랑스연합군과 대치했던 전선. 레마르크 소설 'OO전선 이상 없다' 13. 맵지 않고 향기로운 고추 품종. 14. 대단히 재산이 많은 부자. 15. 함께 사는 것.